즉시 배포용: 2023년 11월 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근로자 보상 평가율의 2024 하향 조정되어 뉴욕주 기업이 5,000만 달러 이상을 절감할 것이라 발표

근로자 보상평가율은 2024년 6 퍼센트 감소하여 주 전역의 소상공인 400,000곳이 대규모 비용 절감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24년 1월 1일부터 연례 근로자 보상평가율이 낮아지면서 뉴욕의 기업이 2024년 5,000만 달러 이상을 절감할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업은 뉴욕주 근로자보상 시스템의 운영비를 연간 평가에 따라 지불하며, 이를 통해 근로 중 다치거나 병을 얻은 근로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뉴욕 기업에 대한 현재 평가 비용일 줄어들면서 비용 절감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주 전역의 소상공인 400,000곳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기업이 늘어나는 비용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이번 평가액 하향조정은 소상공인들에게 유의미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며, 이들은 힘들게 번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상공인 커뮤니티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돌아가게 하며 주 전역을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제 행정부는 뉴욕이 가장 기업 친화적이고 동시에 노동자 친화적인 주가 되어 근로자 보상 등 필수적인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주 근로자 보상 위원회(New York State Workers' Compensation Board) 위원장은 모든 기업 대상 평가율을 매년 11월 1일 정하며,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024년 기준 기본 프리미엄은 9.2 퍼센트이며, 이는 2023년에 비해 6 퍼센트 줄어든 것으로 뉴욕주 기업은 약 5,300만 달러를 절감하게 됩니다.

Clarissa Rodriguez 근로자 보상 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주지사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지원할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 기업의 비용이 줄어든다는 발표와 더불어 직원들의 최소 수당이 늘어났다는 발표가 최근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업은 물론 근로자 역시 혜택을 받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평가율은 근로자 보상 위원회가 뉴욕주 기준 프리미엄의 예산과 수요에 따라 결정합니다. 평가율은 위원회의 총 예상 연간 비용을 총 예상 프리미엄 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가입자는 프리미엄 또는 프리미엄 동일 값에 따라 평가율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4 평가율을 비롯해 근로자 보상 관련 기업 정보 등은 뉴욕주 근로자 보상 위원회 홈페이지 wcb.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